

패널 토론: AI 시대의 통신 네트워크의 역할

일자 - 2025년 11월 19일(수) 15:00~17:00

장소 - 라한셀렉트 경주 지하1층 컨벤션A

초대의 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에 걸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AI 기술의 성장은 통신 네트워크의 진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AI는 네트워크의 지능화와 자동화를 촉진하며, 반대로 고도화된 통신 네트워크는 대규모 AI 서비스 구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통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AI 시대의 통신 네트워크의 역할”을 주제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지향적 통찰과 기술적 방향성을 공유하는 패널 토론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AI-Native Network, 에너지 효율, 네트워크 기반 AI 서비스, 윤리 및 보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통신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최완 교수 (서울대학교)
발제	최성호 PM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패널 토론자 (가나다순)	김동구 교수 (ORIA, 연세대학교) 류탁기 본부장 (SKT 인프라기술본부) 백용순 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양현종 교수 (서울대학교) 이상헌 담당 (LGU+) 이종식 연구소장(전무) (KT 미래네트워크연구소) 장경희 교수 (6G포럼, 인하대학교) 최성호 PM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